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파푸아뉴기니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2024년 2월 23일 | 팀장(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63천 km ² 	인구 1,227.8만 명 (2023 ^e) 	정치체제 입헌군주국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GDP 316.9억 달러 (2023 ^e) 	1인당GDP 2,581.18달러 (2023 ^e) 	통화단위 Kina 	환율(U\$기준) 3.59 (2023 ^e) 

-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의 동북부에 있는 뉴기니섬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 1975년 9월 호주로부터 독립한 영연방의 일원이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 금, 구리, 석유 등 광물자원 및 농림수산물 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LNG와 금의 수출 호조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음.
- 그러나 LNG와 금의 수출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로 인해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건빌 자치주의 독립 추진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치안 불안 등 여러 정치-사회적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최근 미-중 갈등의 와중에 태평양 지역에서 동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도 동국에 다양한 협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6. 5. 19 수교 (북한과는 1976. 6. 1)

주요협정 기술협력협정('83), 어업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6), 차관약정('0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출	75,126	142,172	183,562	철강, 기계, 전자기기
수입	689,971	1,684,405	1,033,739	농산물, 광물, 목재

해외직접투자 현황(2023년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0건, 197,13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제성장률	4.5	-3.2	0.1	4.3	3.0
소비자물가상승률	3.9	4.9	4.5	5.3	5.0
재정수지/GDP	-4.4	-8.9	-6.8	-5.3	-4.3

자료: IMF, EIU

2023년 경제성장률은 LNG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된 3.0% 기록 추정

- 2023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주요 수출품목인 LNG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 국제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뉴욕상업거래소 기준 LNG 선물가격 연중 최고치는 2022년 9달러를 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4달러에 미달)하며 상품수출액이 감소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민간소비 증가가 정체된 결과 전년 대비 1.3%p 하락한 3.0%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24년에는 LNG 국제수요의 안정적 유지, 대규모 LNG 플랜트 프로젝트 "Papua LNG"의 추진에 따른 투자 증가, Porgera 금광에서의 금 생산 재개¹⁾ 등이 전망됨. 이에 IMF, S&P Global, EIU 모두 파푸아 뉴기니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전년보다 개선된 5.0%²⁾, 4.3%³⁾ 및 3.6%⁴⁾로 각각 전망함.
- TotalEnergies(프랑스)는 ExxonMobil(미국), Santos(호주), JX Nippon(일본)과 합작으로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에 연간 생산량 560만 톤 규모의 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Papua LNG"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금년 중 착공되어 2028년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 동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기본설계(FEED)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총투자액은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LNG 수출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에 이어 5%대 유지 추정

- 소비재와 자본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파푸아뉴기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주요 수입상대국인 호주와 중국의 물가상승률 및 환율 변동(해당국들의 수입물가에 영향)에 크게 좌우됨. 2023년에는 키나화 환율 상승과 상품 수입가격 강세로 수입물가 상승이 지속된 결과 2022년(5.3%)에 이어 2023년에도 5.0%를 기록하여 2년 연속 5%대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파푸아뉴기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 IMF와 S&P Global은 2023년과 비슷한 외부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각각 4.9%와 5.0%로 전망하였음.

1) 추정매장량 417톤 규모의 Porgera 금광은 중국 Zijin Mining Group과 캐나다 Barrick Gold가 각각 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금광 채굴권 계약 갱신을 거부한 이후 3년 이상 금 채굴이 중단되어 왔음.

2) IMF Country Report: Papua New Guinea (December 12th 2023) No.23-385, p.3 (Table 1).

3) S&P Global - Global Economics|Profile: Economic - Papua New Guinea (January 15th 2024), p.1.

4) EIU One-click Report: Papua New Guinea (January 19th 2024), p.5 (Forecast summary).

국내경제

재정수지는 2023년에도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세수 증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 추정

- 파푸아뉴기니의 재정수지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급증,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에 따른 LNG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8.9%의 적자를 기록(2019년에는 -4.4%)하였으나, 동 비율은 2022년에는 국제 상품가격 상승에 따라 광물 및 LNG 생산 부문에서의 세수 증대에 힘입어 -5.3%로 개선되었으며, 2023년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4.3%로 개선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 IMF와 EIU는 2024년에는 Porgera 금광에서의 금 생산 재개 전망 등에 기반한 재정수입의 증대를 기대하여 파푸아뉴기니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각각 -3.9%⁵⁾ 및 -4.0%⁶⁾로 2023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5) IMF Country Report: Papua New Guinea (December 12th 2023) No.23-385, p.3 (Table 1).

6) EIU One-click Report: Papua New Guinea (January 19th 2024), p.5 (Forecast summary).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상 수 지	3,559	3,419	4,499	9,899	8,439
경상수지/GDP	14.4	14.3	17.1	31.4	26.6
상 품 수 지	6,722	5,487	7,165	11,628	10,126
상 품 수 출	10,946	9,076	11,446	15,913	14,438
상 품 수 입	4,224	3,589	4,281	4,285	4,312
외 환 보 유 액	2,234	2,596	2,799	3,899	3,998
총 외 채	18,745	16,372	18,024	19,141	20,320
총외채잔액/GDP	75.7	68.7	68.5	60.7	64.1
D.S.R.	23.7	22.9	23.6	16.0	16.6

자료: IMF, EIU

LNG와 금 수출에 기반한 상품수지 흑자로 GDP의 20%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 파푸아뉴기니는 LNG와 금의 수출⁷⁾에 기반한 상품수지 흑자(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GDP의 20%를 초과)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22년에는 LNG 국제가격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구가한 데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무려 62.3% 증가하며 경상수지가 GDP 대비 31.4%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LNG 국제가격 급락으로 LNG 수출액도 감소하였음. 다만, 금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금 수출액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하여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하고 경상수지는 GDP 대비 26.6%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NYMEX(뉴욕상업거래소)의 LNG 선물 가격(Henry Hub)은 2022년 8월 하순 9달러를 초과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연중 최고치가 4달러에 미달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음. 반면 COMEX(뉴욕상품거래소; NYMEX와 함께 CME Group 계열이며 금속 선물거래에 특화)의 금 선물가격은 2023년 12월 4일 2,152.30달러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지속하였음.
- EIU는 2024년에도 LNG 국제수요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특히 금 국제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의 경상수지가 전년 대비 3%대 증가한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⁸⁾

7) 2021년 기준 파푸아뉴기니의 상품수출액 구성은 LNG 38.1%, 금 15.6%, 구리 원광(copper ore) 7.4%, 팜오일 6.4%, 니켈매트(nickel mattes 니켈을 제련하여 생성한 중간 생산물) 6.0%, 원유 5.6% 등임(자료: oec.world/en/profile/country/png).

8) EIU One-click Report: Papua New Guinea (January 19th 2024)

외채상환능력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채상환능력이 안정적이고 단기외채상환위험도 낮은 수준

-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에 힘입어 2022~23년 연속으로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7개월분을 초과하고 D.S.R.이 IMF 권고수준(18~20%) 미만인 16%대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총외채잔액에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 비중이 한 자릿수를 유지(2023년 말 2.4% 추정)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안정적이고 단기외채상환위험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총외채잔액이 GDP의 6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2023년 말 64.1% 추정)하여 외채규모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IMF는 파푸아뉴기니의 외채상환위험을 높음(High)으로, 외채규모와 전반적 채무규모는 지속 가능(Sustainable)으로 평가

- IMF는 2023년 12월의 부채지속가능성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보고서에서 파푸아뉴기니가 무역 관련 외부충격과 우발채무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채상환곤경위험(Risk of external debt distress)과 전반적 채무상환곤경위험(Overall risk of debt distress)을 모두 "높음"(High)으로 평가하였음.⁹⁾
- 다만, 동 보고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와 보수적인 자금 조달 전략을 위한 당국의 계획 이행을 전제로 외채규모와 전반적 채무규모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수준"(Sunstainable)으로 평가하였음.

9) IMF Country Report: Papua New Guinea (December 12th 2023) No.23-385, p.83.

구조적취약성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인프라와 양질의 노동력 부족

- LNG와 금이 상품수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고용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이 담당하고 있음. 제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연료와 원자재 등 국제가격 변동폭이 큰 일부 품목의 수출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로 국가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민감함.
- 2021년 기준 파푸아뉴기니의 상품수출액 구성은 LNG 38.1%, 금 15.6%, 구리 원광(copper ore) 7.4%, 팜오일 6.4%, 니켈매트(nickel mattes; 니켈을 제련하여 생성한 중간 생산물) 6.0%, 원유 5.6% 등임¹⁰.
- 산업 및 사회 인프라 부족, 국민의 낮은 교육수준(중등교육 취학률 50% 미만 추정)으로 인한 양질의 노동력 부족,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등이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함.

성장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는 성장 잠재력의 원천

- 파푸아뉴기니는 금, 구리, 원유, 천연가스, 임산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 수출품목인 LNG와 금의 수출에 기반한 상품수지 흑자는 GDP 대비 두 자릿수 비율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탱하는 핵심적 요인임(2023년 GDP의 26.6% 추정).
- 세계 최대의 노천 구리/금 광산으로 알려진 부건빌 섬의 Panguna 광산은 1989년 부건빌 내전으로 폐쇄되기 전까지 파푸아뉴기니 GDP의 10% 이상 및 수출수익의 45% 이상을 담당했던 광산으로, 현재도 약 10억 톤의 구리 원광과 약 1,200만 온스의 금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파푸아뉴기니 중앙정부와 부건빌 자치정부는 금년 중 Panguna 광산을 재개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2023년 중위연령이 21.6세로 추정(CIA World Factbook)되는 등 젊은층이 대다수인 인구 구조를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음.

정책성과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 등으로 경제다각화는 지지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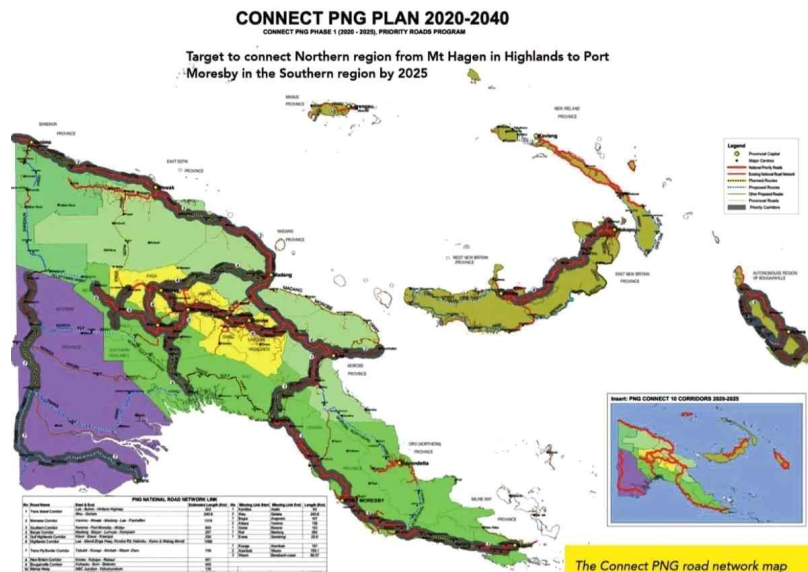
- LNG, 금, 구리 원광 등의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다각화 추진은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임. 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의 2022년 정부정책효율성지수(Government Effectiveness) 조사에 의하면, 파푸아뉴기니는 -0.807점을 받아 조사대상 213개국 중 167위로 하위권이자 대양주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음(1위는 2.145점의 싱가포르).

정책성과

2040년까지 전국의 주요 도로망을 구축하는 “Connect PNG” 프로그램 추진 중

- 2020년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40년까지 파푸아뉴기니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과 교량을 구축한다는 개발 프로그램인 “Connect PNG Economic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me 2020-2040”(이하 Connect PNG)을 개시하였음.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국토 전역의 경제성장, 생산적 투자,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등을 도모함. 동 프로젝트를 위한 법령 “Connect PNG (Funding and Implementation Arrangements) Act 2021”이 제정되어 2022년 2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총 200억 키나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임.
- Connect PNG는 20년 간 3단계에 걸쳐 총연장 16,200km의 도로망을 구축·확장·재건·유지하는 프로젝트로, 총 3단계로 구성됨.
 - 제1단계(2022년 개시, 2027년 완공 목표, 예산규모 74.4억 키나) : 4개의 핵심 도로망 프로그램(Strategic Economic Highways, Construction of Missing Links, Building of Provincial and District Economic Roads, National Bridge Development and Upgrade)을 통해 약 8,000km의 도로망 구축
 - ① 16개 고속도로(Strategic Economic Highways) 건설·업그레이드: 총연장 4,200km, 35억 키나 투입
 - ② 미연결 도로(‘Missing Link’ road) 건설·업그레이드 : 총연장 1,900km, 2023~27년 간 매년 2억 키나(총 10억 키나) 투입
 - 수도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와 제2의 도시 라에(Lae)를 연결하는 Trans-Island Highway(독립 50주년인 2025년 완공 목표), 웨스트 뉴 브리튼 주의 주도(州都)인 김베(Kimbe)와 이스트 뉴 브리튼 주의 주도인 코코포(Kokopo)를 연결하는 New Britain Highway 건설 포함
 - 제2단계(2028~34년, 예산규모 67억 키나) : 제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도로망의 업그레이드·확장
 - 제3단계(2035~40년, 예산규모 53억 키나) : 제2단계의 연장선상

[그림 1] Connect PNG 계획 전도



정치안정

2024년 1월 포트모르즈비 폭동 등으로 Marape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능성 제기

- 2022년 7월 4~22일 실시된 총선 결과 James Marape 총리(2019년 5월 취임)의 소속 정당인 Pangu Pati(파푸아뉴기니 연합당)가 118석 중 39석을 확보하여(2017년 총선 당시의 9석에서 무려 29석 증가)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Marape 총리는 의회 내 다수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하였음.
- 그러나 2024년 1월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발생한 약탈 및 폭동의 정부 책임론(아래의 “사회안정” 내용 참조)이 제기되고, 2월 20일에는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인 Puma Energy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유류 판매를 잠정 중단하여 사회 혼란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의회에서 야당이 Marape 총리의 불신임 투표¹¹⁾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사회안정

폭력 사태, 강력범죄 빈발 등으로 대양주 국가들 중 치안이 가장 열악

- 800여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파푸아뉴기니는 사회 전반에 부족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이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족 간 갈등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빈발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횡행하여 ‘대양주 국가들 중 치안이 가장 열악한 나라’로 꼽힘.
- 국토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산악지역과 열대우림 지역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아 다양한 부족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 최근 총포류 등 현대 무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부족 간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총선 때마다 부족 간의 갈등이 투표 조작 시비 등으로 이어져 선거운동 및 투·개표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함. 2017년 총선 때는 200여명, 2022년 총선 때는 50여명이 폭력 사태로 사망하였음. 아울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장기체류자, 관광객 등)까지 표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만연하여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4년 1월 10일 정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2주일치 급여에서 300키나(약 10만 5천 원)를 삭감한 데 항의하여 경찰관, 군인, 교정 공무원 등이 평화 시위를 벌였는데, 시위 소식이 알려지자 치안 공백을 틈타 수도 포트모르즈비와 제2의 도시 라에에서 수천 명이 무리를 지어 상점을 약탈하고 의회와 총리 관저에 물려가 경비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일으켜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이에 Marape 총리는 14일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병력을 투입하여 폭동을 진압하였음.
- 이어 2월 19일에는 파푸아뉴기니 경찰이 포트모르즈비에서 북서쪽으로 600km 떨어진 산악 지역 엔가주 와바그 마을 근처에서 26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음. 경찰은 시신들이 이 지역에서 시킨 부족과 카에킨 부족, 암불린 부족 간 갈등으로 촉발된 총격전으로 발생한 사망자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엔가주는 17개 부족이 서로 갈등을 빚으며 폭력 사태가 빈발하는 지역임.

11) 의원내각제인 파푸아뉴기니는 새 내각 구성 후 18개월 동안은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 금지 기간이 2024년 2월 중 종료됨.

사회안정

부건빌 자치주의 분리독립 추진으로 중앙정부와의 정면 충돌 우려 상존

-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군도 사이에 위치한 부건빌 섬은 민족·문화적으로 파푸아뉴기니 본토보다 솔로몬 군도와 더 가깝고, 1918년까지 독일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호주의 위임통치를 받으면서도 파푸아뉴기니 본토와의 이질성이 유지되어 1975년 5월 16일 파푸아뉴기니가 호주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분리독립 움직임이 계속되었음.
- 또한 부건빌 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노천 구리/금 광산인 팡구나 광산은 세계 2위 광물회사인 호주 Rio Tinto의 자회사였던 Bougainville Copper(대주주는 파푸아뉴기니 중앙정부)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구리/금 생산의 막대한 이익이 섬 주민들에게는 거의 전혀 돌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 광산 개발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아울러 섬 주민들이 호주에서 온 백인 기술자·노동자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음.
- 갈등이 누적된 끝에 1988년 12월 1일 파푸아뉴기니 정부군과 부건빌 반군(BRA)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부건빌 섬 전체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이어져 내전이 발발하였음. 파푸아뉴기니 정부군은 호주의 지원을 받아 부건빌 섬 전체에 1994년까지 해상 봉쇄를 단행하고, 팡구나 광산을 비롯한 부건빌 섬의 광산들은 폐쇄되었음(팡구나 광산은 2024년 2월 현재까지 폐쇄 지속 중).
- 2만 명에 이르는 부건빌 주민이 사망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등 부건빌 섬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끝에 1998년 4월 20일 평화협정 체결로 내전이 종료되고 2002년 6월 25일 부건빌 자치정부(ABG)가 출범하였음. 2016년 1월의 ABG와 파푸아뉴기니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부건빌 자치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2019년 11월 23일~12월 7일 실시되어, 12월 11일 투표율 87.59%에 독립 찬성이 98%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공식 발표됨. 다만, 이 투표는 구속력이 없으며 파푸아뉴기니 의회에서 독립 승인을 가결해야만 분리독립이 가능함.
- ABG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부건빌 자치주의 완전 분리독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팡구나 광산을 비롯한 부건빌 섬의 막대한 광물자원을 포기하기 어려운 파푸아뉴기니 중앙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함. 한편, ABG의 Ishmael Toroama 자치정부 수반은 2024년 2월 11일 팡구나 광산 재개장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발표함.

[그림 1] 부건빌 섬 지도



사회안정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 Connect PNG 프로젝트 관련 의혹도 제기

- 파푸아뉴기니는 낮은 수준의 시민의식으로 인해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약하고 부족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구조상 권력자가 자신과 부족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하거나 사업상 이권을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도둑 정치'(kleptocracy)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에 의하면, 파푸아뉴기니는 29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133위로 하위권이자 대양주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음(1위는 90점의 덴마크).
- 2012년 8월 Peter O'Neill 당시 총리는 국가반부패전략 태스크포스(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Task Force, NACSTF)을 설립하였음. NACSTF는 독립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됨.
- Peter O'Neill 전 총리는 2024년 2월 18일 Connect PNG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정부패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Connect PNG와 관련된 모든 지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Connect PNG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와 내무장관(Minister of Works)의 즉각적인 사임 및 Connect PNG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음.
- 2024년 2월 14일 파푸아뉴기니 재무부 관리로 알려진 익명의 제보자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Connect PNG와 관련된 전직 공무원들과 그 친척들이 설립에 관계한 건설회사들 및 지방정부 기관들이 설립한 면세 혜택을 받는 일반 기업들이 Connect PNG의 공사를 수주하고, 도로 건설에 배정된 자금이 총리 또는 내무장관 관련인 소유 회사에 흘러들어가는 등 지난 2년 반 동안 Connect PNG와 관련하여 총액 약 20억 키나에 달하는 1,400건 이상의 '부정한 지불행위'가 발생하였음.

국제관계

호주와 밀접한 경제·군사적 관계 유지, 최근 미국과도 안보협정 체결 등 관계 강화

- 파푸아뉴기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신탁통치를 받다 1975년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호주로 부터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파푸아뉴기니의 국가별 FDI 유입액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12월 호주로부터 치안·사법 시스템 관련 지원을 받고 군사협력도 강화하는 내용의 안보협정이 양국 간에 체결되었음.
- 파푸아뉴기니는 태평양에서 미군의 군사적 요충지인 괌과 가깝고,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의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음.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최근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을 시도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에게 파푸아뉴기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환기시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2023년 5월 미국과 파푸아뉴기니는 미군이 파푸아뉴기니의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안보협정을 체결하였음.
- 한편, 뉴기니 섬의 서반부로 파푸아뉴기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인 파푸아(옛 명칭은 서뉴기니 또는 이리안 자야) 내의 반(反)인도네시아 분리독립 운동 조직들의 활동을 빌미로 인도네시아 군대가 파푸아뉴기니 영토에 진입하여 과거 양국 관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안보·치안 분야 협정 체결 추진 등 중국과의 밀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추진 취소

- 중국은 2022년 4월 솔로몬군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군사적 원조를 앞세워 대양주 도서국들에 자국 해군 기지 설치를 추진하며 태평양에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파푸아뉴기니는 대양주 국가들 중 호주 다음으로 국토면적이 넓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어, 중국은 파푸아뉴기니와도 안보·치안 분야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음.
- Justin Tkachenko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은 1월 29일 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경찰 훈련과 장비, 감시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중국과 안보·치안 협정 체결을 위한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Tkachenko 외무장관은 2월 7일 호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파푸아뉴기니가 중국과 새로운 치안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고, 호주와 맺은 안보협정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전통적 파트너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다”고 밝혔음.
- 이처럼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데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Tkachenko 외무장관의 Reuters 통신 인터뷰 이후 2월 4일 Richard Verma 미 국무부 부장관은 호주 Sydney Morning Herald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국방이나 투자에 대해 약속할 경우 큰 비용이 따른다”며 파푸아뉴기니를 겨냥해 중국과의 안보협정 체결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음.

외채상환태도

202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여신에 대한 연체 없음

- 2023년 9월 말 기준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42억 6,310만 달러(단기 3,800만 달러, 중장기 42억 2,510만 달러)이며, 연체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23.06)	6등급 (2022.07)
S & P	B- (2022.05)	B- (2021.06)
Moody's	B2 (2022.11)	B2 (2021.04)

OECD는 6등급, S&P와 Moody's는 투자부적격등급 부여 지속

- OECD는 2016년 6월 외채지표 악화, 정치적 불안정, 인접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파푸아뉴기니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2024년 2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S&P는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우려하여 파푸아뉴기니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16년 4월 외채지표 악화, 정치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파푸아뉴기니의 국가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한 단계 하향 조정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파푸아뉴기니는 금, 구리, 원유, 천연가스, 임산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2023년 기준 중위연령이 21.6세로 추정되는 젊은 인구 구조를 보유하여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LNG와 금의 수출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로 국가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민감함.
- IMF는 부채지속가능성분석(DSA, 2023.12월) 보고서를 통해 파푸아뉴기니의 외채상환곤경위험과 전반적 채무상환곤경위험을 모두 '높음'(High)으로 평가함. 다만,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양호한 수준이고,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2023년 말 2.4%에 불과하여 외채구조는 안정적임.
- 사회 전반에 부족주의가 지배적이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빈발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함. 지난 1월 10일에는 경찰의 파업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약탈 폭동을 유발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최근 미-중 갈등의 와중에 태평양 지역에서 동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도 동국에 다양한 협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